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What we most need

도르카스 스트롱 (Dorcus Strong)

크리스천 사이언스 저널 온 라인판 (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online)

2011년 9월 5일

만일 병과 싸우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치유”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자리를 찾느라 지친 실직자는, “내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취직하는 것이 가장 필요 하다.”고 할 지 모른다. 자녀들 문제로 고심하는 부모들은 그들이 좀 더 운순해 지기를 갈망할 지 모른다. 나이든 부모님이나 다른 친척들을 돌봐야 하는 분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부담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느낄지 모른다.

이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건강* 부성서의 열쇠의 저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내, 온유, 사랑, 그리고 선한 행실로 표현되는,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열렬히 갈망하는 기도이다.”(4 쪽)라고 썼다. 이 영적 요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 요구에 대한 해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즉 우리의 천상의 부모님이신 사랑께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함이 있어야만 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야고보서 5:16)고 장담한다. 주석번역본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즉 “의로운 사람의 진실된 (마음으로부터의, 끊임 없는) 기도는 엄청난 권능이 [작용함에 있어서 역동적인]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은혜는 역동적이다; 그것은 성격과 행동을 변환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열렬하게 갈망해야 한다.

영적 치유는 항상 은혜를 경험함, 즉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효과”이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구절은 이것이 계속적인 과정임을 가리킨다. 그것은 개발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반영을 통하여 신성의 속성인 은혜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로, 은혜를 표현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실증하여야만 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들에 의한 많은 질병들의 치유에 대한 언급하여, 에디 여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대 범신론*, 10 쪽)고 썼다.

치유를 추구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이디어인 당신과 나를, 바로 지금 완전하고 조화롭고, 건강한 상태 안에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분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질병이나 다른 육신적 부조화들에 대한 믿음의 영향을 입지 않은, 우리의 영적 온전함에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대한 과학적 사실을 일별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영적 치유는 항상 은혜의 경험, 즉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효과”이다.

다시, 은혜 안의 성장은 “인내, 온유, 사랑, 그리고 선한 행실들 안에서” 표현된다. 인내, 즉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킴, 안에는 개인적 자아가 없다. 인내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급함과 아집을 관용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자세가 된다.

온유함 안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으로서 인정하며,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는 과학과 건강에서, “인내의 하나님께 대한 인내의 복종을 통해 사랑의 보편적인 용해제로, 영성(靈性)에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인, 오류 - 즉 아집, 자기 정당화, 그리고 자기애(自己愛)-의 견고함을 녹여버리도록 노력하자.” (242 쪽) 라는 구절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의 반영인 사람 역시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인내는 고갈될 수 없다!

개인적 자아의 오류들은, 단단하고, 꿰뚫을 수 없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해 전, 견고한 오류로 보이던 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사전에서 견고함(adamant)의 고어의 정의가 “상상에 있어서 꿰뚫을 수 없는”(imaginatively impenetrable)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었다. 그렇게 견고한 것으로 보이던 것이 실상은 상상 안에서 그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안이었던가? 우리는 신성의 **사랑** 안에 모든 오류와 자아를 녹여 내는 “보편적 용해제”를 가지고 있다. 인내의 은혜가 그것들을 녹여버리도록 돕는다.

많은 사람들은 온유함을, 일종의 죽대 없는, 나약한 성격과 연관된, 연약함의 한 형태로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과는 정 반대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구원자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유일하게 온유한 사람이었다. (민수기 12 장 3 절 참조) 그의 온유함은 은혜의 한 표현이었다.

여러 해 전, 견고한 오류로 보이던 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사전에서 견고함의 고어의 정의가 “상상에 있어서 꿰뚫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었다.

에디 여사는 그리스도 예수가 “막강했던 만큼이나 온유했던” 것으로 말을 했다. (*과학과 건강* 597 쪽) 예수님은 항상 자기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온유함이란 소아(小我)가 부재함이다. 온유함 안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아버지**께 나아간다. 온유한 사람은 오류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반영할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에 대한 박해자들을 향한 태도가 그 최상의 본보기이다. *과학과 건강*은, “우리의 주님은 그의 위대함을 알아 채지 못한 자들로부터의 조롱을 온유하게 대면하셨다.”(39 쪽)고 말한다. 자신이 신성의 **사랑**으로부터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깨달음으로써, 증오, 모욕, 허위진술과 박해에 의해 동요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훼방하는, 그 보다 훨씬 덜한 반대를 맞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그분의 온유함에 대한 본보기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요셉과 바울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 보면, 온유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역경을 뛰어넘고 정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요셉이 직면하였던 그 어떤 도전 - 즉 질투, 증오, 그릇된 고소, 불공평 - 에 대해 그는 결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온유함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고 악에 대한 승리의 보상을 얻어낸다. 바울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위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온유함으로 인한 권능을 부여 받았다. 신성의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에 대한 그의 의식이 그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로마서 8 장 37 절)고 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분의 참된 추종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적 사랑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사랑에서 나타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훈은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해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Miscellaneous Writings 1883-1986, 138 쪽*)고 에디는 썼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교훈을 가르치셨고 당신께서 그대로 사셨다. 그분의 사랑은 진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골고다 언덕 위로 지고 가셨고, 거기서 그 십자가위에 처형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그 후 사망과 무덤에 대한 그분의 승리라는 왕관이 씌워졌다. 그분께서는 모든 세대의 온 인류를 위해 완전한 사랑이 증오를 정복한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분의 삶은 은혜의 장엄한 본보기였다. 그분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적 사랑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훈을 배우고 또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즉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한 영적 치유에 대한 거부를,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오로지 우리의 사랑을 더욱 완전하게 할 것이다.

은혜 안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이제까지 논의된 네 가지의 요소들 가운데, 처음의 세 가지, 즉 인내와 온유함과 사랑은 영적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인 선한 행실은 이런 그리스도적 자질의 일관성 있는 반영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선한 행실들은 여러 칭찬 받을 만한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은혜 안의 성장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선한 행실들은 치유의 역사이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라.”(사도행전 10 장 38 절)라고 적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나쁜 건강과 궁핍함과 기쁨이 없음과 고독함과 싸운다. 그러나 신성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증가할 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영감과 깨달음을 받게 된다.

도르카스 스트롱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사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자 선생이다.